

날짜 2024-09-01(D1) 본문 눅22:1-6
번호 2559 설교 변일국 목사
구분 주일예배, 성찬 찬송 찬140 '왕 되신 우리 주께'

시작 주기도
찬송 찬140 '왕 되신 우리 주께'
기도 권영희 사모
본문 눅22:1-6
설교 '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'
성찬 마26:26-28, 찬230, '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'
찬송 찬141, '호산나 호산나'
봉헌 권영희 사모
광고

① 번역 및 블로그

AC.210, 창3:6, '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'(AC.207-210)
HH.598, 63장, '사람의 자유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균형에 달려 있다'(HH.597-603)

헌금기도

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
¹¹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(사58:10-11)

오, 주님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,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..

축도

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,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

오, 기록하신 사랑의 주님, 오늘부터 누가복음 22장 시작, 오늘은 그 첫 번째 본문,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본문입니다.

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2장, 유월절 장을 함께 봉독했습니다. 평소 바이블 리딩을 잘 안 하는,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이 부족한 저는 주일예배, 특히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장 전체를 굳이 읽게 하시는 목사님의 의도가 느껴져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고,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. 12장 전체를 통해 유월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며, 그래서 특히나 더 오늘 본문의 대체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악독함이 생생하게 와 닿았고, 그래서 더욱 주님의 제자 중 하나 가롯 유다의 변절이 정말 안타까우며, 한편 무서웠습니다. 저 역시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다 싶었기 때문이지요. 오늘 특히 제게 와닿았던 말씀은 바로 ‘...쓴 나물은 거듭나는 사람들이 겪는 시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. 시험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. 설령 선을 행하더라도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립니다. 왜냐하면 시험이 없으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. 시험에서 반복해서 질 때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, 그리고 자기 안에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있는지 깨닫습니다.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...’ 하신 말씀인데요, 바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하신 주님 말씀을 풀어주신 부분입니다. 일상 가운데 접하는 시험들, 대부분 제가 자초하는 시험이지만, 한편으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험들 앞에서 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, 주님, 저를 도와주세요!

간절히 기도하는, 이 자리 모인,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,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,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!